

# brilliant memories: 동행 #3

박문희 작가와 정혜란 님의 이야기



# “희망을 싣고 달려온 인생길”

## 정혜란 님, 2000년식 포터

무일푼으로 결혼해 올해 30주년을 맞은 우리 부부에게, 듬직한 ‘복덩이’로 17년을 함께 달려준 포터. 가난한 집안 장남이었지만 천성이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가정적이었던 남편이 20여 년 전 일어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수술하며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된 우리 가족에게 ‘기회’를 선물해준 고마운 트럭입니다. 어린 두 아들과 작은 월셋방에서 살며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가운데서 남편은 “트럭 한 대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데...” 했네요.

남편의 아픈 두 다리를 이끌고 백방으로 길을 찾아 36개월 전액 할부로 구입한 중고차 ‘현대 포터’입니다. 이 트럭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. 가족 여행이라고 꿈은 ‘추억’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지 못하고, 그저 일에 빠져 아등바등 살았지만, 그래도 이제 빛도 갠고 내 집 장만도 했습니다. 이곳 저곳 아픈 곳이 늘어나는 포터를 보며 짠한 마음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네요. 남편의 두 다리가 되어 동행해준 고마운 포터.

환갑을 넘겨서도 열심히 중고물품 일을 하는 남편과 우리 가족은 앞으로도 힘차게 달려며 살아갈 테니까요.





정혜란 님 부부와 포터의 추억, 그리고 이별의 순간

## 작가 박문희



박문희 작가는 1982년생으로 중앙대학교에서 조소를 전공했습니다. 2013년 갤러리 압생트에서 첫 개인전을 가진 그는, 이듬해 송은아트큐브에서 그간의 작업을 총망라하는 개인전 <미지의 생명체>를 선보였습니다. 이후, 월간 퍼블릭아트 선정작가와 <2013 코리아투모로우>, <CoverUncover>, <Summer Love> 등에 참가하며 신진 작가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박문희의 작품은 단일한 물질로 만들어진 작품조차 이것 저것이 동원된 설치물이라는 느낌을 줍니다. 여러 작품에 나타나는 포장 막 같은 형태는 내부와 외부 사이의 불일치를 조성하며 수수께끼를 불러일으킵니다. 생명체의 형태를 한 사물 그리고 유기적이지 않은 유기체 등 이질적으로 조합된 조각은 의미와 주체와 대상과 완전한 일치 대신 이러한 틈에서 발생하는 아이러니함 그 자체에 집중하며 확대된 대상의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킵니다.

